

ISSUE BRIEF 2018

vol.7
키워드로 보는
2018 평생학습 이슈

SEOUL METROPOLITAN INSTITUTE FOR LIFELONG EDUCATION

평생학습 × 정책

대한민국 평생교육의 정책변화와 서울 평생교육의 발전과제

권두승 | 명지전문대학교 청소년교육복지과 교수

대한민국 평생교육의 정책변화와 서울 평생교육의 발전과제

권두승

명지전문대학교
청소년교육복지과 교수

2016년 우리 사회를 뒤흔들었던 광화문의 촛불혁명은 2017년 ‘사람중심의 가치’를 내걸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공약한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켰다.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의 핵심은 ‘교육의 국가책임 강화’라는 키워드로 집약된다. 이는 교육을 ‘더불어 성장으로 함께하는 대한민국’을 이루어 내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치로서 문재인정부는 교육기구를 개편하여 대통령 직속 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초·중등 교육업무를 단위학교와 시도 교육청으로 이양하며, 교육의 기능을 고등, 평생, 직업교육 중심으로 개편을 도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토대로 대한민국의 평생교육 방향도 과거와는 다른 형태로 전환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기본적인 정책변화에 따라 본고에서는 문재인 정부체제하에서 진행되어 왔는 평생교육 정책변화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사회변화와 더불어 서울 평생교육이 지향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를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

1 문재인 정부의 평생교육 관련 정책 분석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의 핵심은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강화이다. 이는 이전 박근혜 정부가 경제중심의 행복교육 정책을 강조하였다고 한다면, 문재인 정부는 사람중심의 국가교육 강화정책으로 방향을 선회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기본적으로 국민중심의 민

<표 1> 국가중심 민주주의와
국민 중심의 민주주의의 비교

출처: 국정기획자문위원회(2017)

구분	국가 중심의 민주주의	국민 중심의 민주주의
국민의 성격	근대적 국민	주권자 국민
국민-국가 관계	국가 구성원으로서 국민	국가를 형성하는 국민
국민주권의 특성	대표되는 국민주권	개개인의 국민주권
권력의 성격	위임된 권력	생성적 권력
참여방식	제도화된 국민참여	일상적인 국민주권 행사
주권 실현방식	참정권, 투표권	국민제안, 국민숙의, 국민결정
역사적 사건	1987년 6월 항쟁	2016년 촛불집회
사건의 의미	국민주권의 통로·제도 구축	아래로부터의 국민주권 표출
민주주의 형태	제도 민주주의	일상 민주주의
정치-시민 관계	제도정치와 시민사회의 괴리	제도정치와 시민사회의 연계
시민참여 기반	조직화된 시민사회 기반	자발적 개인들의 네트워크

<표 2> 박근혜 정부의 평생교육 관련 정책과 문재인정부의 평생교육 관련 정책 비교

구분	박근혜 정부의 평생교육 관련 정책	문재인 정부의 평생교육 관련 정책
국정비전	희망의 새 시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국정목표	행복한 국민- 행복한 한반도- 신뢰받는 모범국가	국민이 주인인 정부 -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교육정책	국민행복-창의교육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
평생교육 국정과제	100세 시대 국가 평생학습 체제 구축 - 온·오프라인 평생학습 관리체제 구축 및 지역 맞춤형 평생교육제공 - 생애주기별·계층별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추진	고등교육 질 제고 및 평생·직업교육 혁신 - 국가 직업교육 책임강화 - 성인 평생학습 활성화

출처: 교육부(2013)

출처: 국정기획자문위원회(2017)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박근혜 정부에서는 선거 과정에서부터 ‘꿈과 끼를 끌어내는 행복교육’이라는 대선공약을 내세우면서 4대 실천과제로 소질과 끼, 공평한 기회, 교육 경쟁력 제고, 평생학습체계를 공약으로 발표하였으며, 전체 교육공약 중 83%가 교육복지를 강조하는 내용이라는 분석도 있어 교육복지를 강조하였다고도 볼 수 있다(홍영란 외, 2017). 특히, 2013년 3월에 교육부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행복교육, 창의인재 양성’이라는 제목의 국정과제 실천 계획을 보고하였는데, ①경제부흥, ②국민행복, ③문화융성, ④평화통일 기반 구축이라는 4대 국정기조 달성을 위한 14대 추진전략과 140개 국정과제 중 국정과제 ‘70.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 강화’, ‘71. 전문대학을 고등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 집중 육성’, ‘72. 100세 시대 국가평생학습체제 구축’에서 국가 평생교육 진흥 정책 추진을 위한 과제들을 [그림 1]과 같이 집중적으로 제시하였다.

이와는 달리,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에 나타나는 평생교육 정책은 문재인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교육정책은 5대 국정목표의 하나인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부문의‘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영역에 자리하고 있으며, 20대 국정전략 가운데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부문에 포함되어 있다.

시대적 소명	행복한 국민 - 행복한 한반도 - 신뢰받는 모범국가	
국정비전	희망의 새 시대	
국정기조 2 국민행복	추진전략 5 창의교육	<p>전문인재 및 평생학습</p> <p>국정과제 70.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 강화 70-1. 관련부처·지자체 및 산업체 연계 특성화고 육성 70-2. 특수분야 전문인재 양성 마이스터고 지정 다양화 70-3. 국가직무능력표준 중심 교육과정 편성·운영 70-4. 소질과 적성, 취업의지를 갖춘 학생의 직업교육 기회 확대 70-5. 고졸 취업 지속 확대 및 취업자 학위 취득 인프라 구축</p> <p>국정과제 71. 전문대학을 고등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 집중 육성 71-1. 특성화 전문대학 100개교 집중 육성 71-2. 전문대학 학위과정 및 수업연한 다양화 71-3. 전문대학 '산업기술명장대학원' 설치 71-4. 평생직업교육대학 육성 71-5. 전문대학생의 해외진출 활성화</p> <p>국정과제 72. 100세 시대 국가평생학습체제 구축 72-1. 온-오프라인 평생학습 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스마트 기반 평생학습도구를 활용한 지역 맞춤형 평생교육 제공 72-2. 생애주기별·계층별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추진</p>

[그림 1] 박근혜 정부 평생교육 정책 관련 국정과제

출처: 교육부(2013)

국가비전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5대 국정목표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20대 국정전략	1. 국민주권의 춷불 민주주의 실현 2. 소통으로 통합하는 광화문 대통령 3.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 4.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	1.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 2.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3.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4.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5.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	1.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2.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3.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4. 노동존중 성평등을 포함한 차별없는 공정사회 5.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	1.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 2.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3.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1.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 2. 남북 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 3. 국제협력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
100대 국정과제 (487개 실천과제)	15개 과제 (71개 실천과제)	26개 과제 (129개 실천과제)	32개 과제 (163개 실천과제)	11개 과제 (53개 실천과제)	16개 과제 (71개 실천과제)

[그림 2] 문재인 정부의 국가비전-5대 국정목표-20대 국정전략

출처: 국정기획자문위원회(2017)

<표 3>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나타나는 평생교육 관련 과제**
출처: 국정기획자문위원회(2017)

특히, 문재인 정부의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전략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2017년부터 ‘인구오너스’상태에 돌입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보육과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실현하고, 평생·직업교육을 강화하는 국가 마스터 플랜 수립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평생교육정책은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52대 과제로 제시되어 있으며, 이는 ‘고등교육의 질 제고 및 평생·직업교육 혁신’과제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이를 간단히 요약하면 <표 3>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구분	구체적 내용
과제목표	국가 직업교육 책임강화 및 성인평생학습 활성화	
주요내용	고등교육 공공성 강화	- 지자체와의 연계강화를 통한 지역대학 지원확대
	대학 자율성 확대	- 대학재정 지원사업 전면 개편
	직업교육 국가책임 강화	- 직업교육 마스터 플랜 마련 및 직업계고 재정지원 확대, 직업계고 학점제 단계적 운영
	전문대학 질 제고	- 전문대 지원 확대 방안마련 및 전문대학을 직업교육 지역 거점으로 육성
	성인 평생학습 활성화	- 4차산업 분야를 우선으로 분야별 한국형 나노디그리 모델 개발·운영, 성인 비문해자 교육기회 확대, 한국형 무크(K-Mooc) 강좌 확대
	산학협력 활성화	- 대학-공공기관-지자체 연계 산학 협력 클러스터 조성

이와 같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 변화에 따라 교육부의 조직 또한 개편되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육부는 대통령 공약과 국정과제에서 제시한 바에 따라 2017년 12월 8일에 국정과제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조직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이번 조직개편은 고등교육·평생교육·직업교육 중심으로 교육부 정책 기능을 강화한다는 국정과제 이행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교육부, 2018). 특히, 4차 산업혁명 및 고령화 등 미래사회에 대비한 교육정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평생직업교육국을 평생미래교육국으로 개편하였다. 현행 ‘평생직업교육국’에서 직업교육 관련 기능을 ‘고등교육정책실(직업교육정책관)’로 이관하고, 평생교육과 직업교육 각각의 정책기능을 강화하였다. 이에 따라, 평생직업교육국의 평생학습정책과, 인재직무능력 정책과, 진로교육정책과, 직업교육정책과를 각각 평생미래교육국의 미래교육기획과, 평생학습정책과, 진로교육정책과, 이러닝과로 개편하여 4차 산업혁명과 고령화 등 미래사회에 대응한 교육 시스템 변화를 총괄할 수 있는 조직으로 개편되었다(교육부, 2018).

<표 4> **문재인 정부의 교육부 조직개편 현황**

출처: 교육부 홈페이지
(2018.12.20. 현재기준)

(현) 교육부 조직	특성 및 업무
평생미래교육국	- 교육부 정책기능을 고등교육, 평생교육, 직업교육 중심으로 정책기능 강화취지
미래교육기획과	- 평생교육 미래국의 주무과로 개편 1.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인재양성 정책 수립·시행 2. 인재정책 및 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3. 인적자원개발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개선 4. 지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사항 5.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에 관한 사항 6. 글로벌 인재 포럼 및 미래교육·인재개발정책 관련 포럼의 운영 7.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인적역량 전략 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 8. 대한민국 인재상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9. 한국형 온라인공개강좌(K-MOOC) 구축·운영 10. 한국형 온라인공개강좌(K-MOOC) 등을 활용한 산업연계 단기 직무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평생학습정책과	1. 평생학습정책 총괄 2. 성인문해교육, 평생교육 바우처 3. 대학 평생교육 체제 4.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 5. 학원 및 교습소 업무 6. KQF, 민간자격제도 7. 학점은행제
진로교육정책과	1. 진로교육 2. 진로체험 활성화 3. 학교진로교육 활성화 정책 4. 초·중·등 창업체험 교육, 진로체험지원전산망 5. 진로교육과정, 교원 연수 등 지원 6. 진로체험협력체제 구축, 진로체험 인증제
이러닝과	1. 이러닝 세계화, 한-아세안 이러닝협력 2. 사이버대학 3. EBS 수능강의, 사이버학습 4. 디지털교과서, 디지털교과서 활성화 5. 저소득층 교육정보화 지원 6. EBS 고교영상강의, e-학습터, 온라인 수업

2 제3차 및 제4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상에 나타나는 정책변화

제3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2013~2017)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를 반영하면서 ‘100세 시대 창조적 평생학습을 통한 국민행복 실현’이라는 비전으로 창조학습을 주도하는 국민 등 3개 목표 하에, 4대 영역 12개 정책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와는 달리 제4차 기본계획(2018~2022)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를 반영하면서 ‘개인과 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평생학습사회 실현’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4대영역 9개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표 5> 및 [그림 3]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는 제3차 및 제4차 평생교육

<표 5> 제3차 및 제4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상에 나타나는 정책변화의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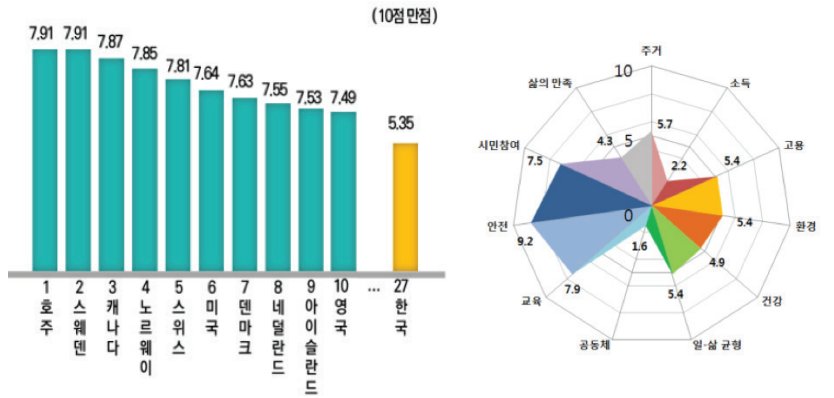
구분	제3차 평생교육 기본계획 -박근혜 정부 체제-	제4차 평생교육 기본계획 -문재인 정부 체제-
수립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행복 실현을 지원하는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 개막- 경제 패러다임의 중심이 지식중심에서 창조경제시대로 이동- 국제지위와 경제수준에 비해 국민 행복지수는 낮은 수준- 창조경제 조성을 위한 고등교육 영역에서의 성인학습자 참여격차 심각- 100세 시대 인생후반기 교육체제 및인프라 확충 필요- 국민이 행복한 창조학습사회의 구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변화) 4차 산업혁명 등 기술혁신으로 일자리 변화촉발- (인구구조) 고령화, 기대수명 증가로 평생학습 수요의 증가- (사회구조) 소득 양극화심화, 공정한 사회에대한 기대 확산- (교육혁신) - IT활용 교수·학습혁신, 학습형태 변화 촉발- (평생교육) 실제참여 시간부족, 계층간 참여 격차 확대
추진 비전	- 100세 시대 창조적 평생학습을 통한 국민행복 실현	- 개인과 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평생학습사회 실현
추진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학습-능력연계- 국가재정지원 확충- 생애단계별·계층별 맞춤형 지원- 협업과 네트워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습자 중심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지속적이고 자발적인 참여 확대- 개인과 사회의 동반 번영 지원- 기관 및 제도간 연계·협력 강화
주요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중심 평생교육체제 실현- 온오프라인 평생학습 종합지원체제 구축- 사회통합을 위한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 지역사회 학습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 누구나 누리는 평생학습- (일자리)와 함께 언제나 누리는 평생학습- (지역)어디서나 누리는 평생학습- (기반)이 튼튼한 평생학습



[그림 3] 제3차 및 제4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의 비전체계도

[그림 4] 주요 국가별 행복지수
및 우리나라 삶의 영역별
행복 정도(13년, OE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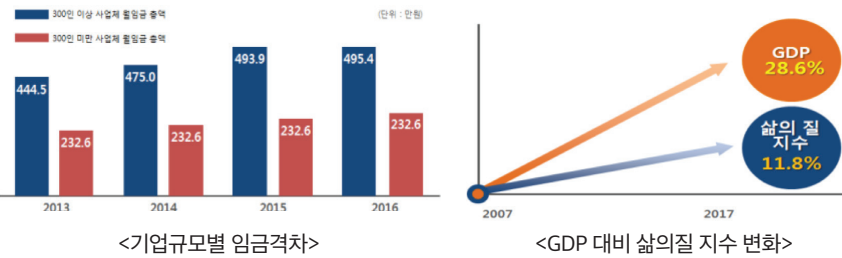
출처: 교육부(2013)



이와는 달리, 문재인 정부 하에서 추진된 제4차 기본계획은 ‘인재(사람)’는 경제성장의 양과 질을 결정하는 핵심요소이며, 지속가능한 혁신성장의 밑바탕이라는 인식하에 외환위기 이후 저성장 고착화, 소득 양극화 지속심화라는 사회적 배경에 주목하면서 이를 평생 학습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데 그 특색이 있다. 말하자면, 평생교육을 통한 역량제고→양질의 일자리→양극화 완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마련함과 동시에 소득, 지역 양극화에 따른 사회통합 요구와 시민사회 성장에 발맞춘 평생학습 지원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차원에서의 평생교육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에 그 특색이 있다는 것이다.

[그림 5] 사회양극화
지속심화 현상

출처: 교육부(2013)



둘째, 위와 같은 평생교육 기본계획 추진배경에서의 차이점은 곧바로 평생교육기본계획 상의 비전의 차이점으로 귀결되고 있다. 말하자면, 평생학습을 창조경제 시대의 개인의 행복과 사회번영의 핵심키워드로 인식하고 있는 제3차 기본계획은 ‘100세 시대 창조적 평생학습을 통한 국민행복 실현’에 두고 있고, 이는 곧 박근혜 정부가 줄곧 강조했던 창조경제에 있어서 개인의 행복→창조성 발현→사회발전이라는 선순환 고리에서의 평생교육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비하여 사람중심의 포용적 성장을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하의 제4차 기본계획에서는 ‘개인과 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평생학습사회 실현’을 그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공정한 교육기회, 양질의 교육서비스는 경제·사회적 불평등 완화와 사회계층 이동성 제고를 위한 기본적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평생교육의 가치를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4차 기본계획에 있어서 평생교육은 “성장-고용-복지”라는 황금 삼각형(golden triangle) 순환체계를 연결하는 가장 확실한 촉매제라는데 주목하고 있다. 말하자면, 박근혜 정부하에서의 평생교육은 ‘개인의 행복추구’에 중점을 두고는 있지만, 그 근본은 창조경제 발전을 위한 수단으로서 평생교육을 강조하였던 것에 비하여, 문재인 정부하에서의 평생교육은 ‘사람이 혁신성장’의 밑바탕이라는 인식하에 국민의 평생학습권 보장을 통하여 개인과 사회의 동반성장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 차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위와 같은 평생교육 비전의 차이는 결국, 평생교육 중점 추진과제에서의 차이를 결과하게 되었다. 제3차 기본계획상에서는 ‘창조경제 조성을 위한 고등교육’에 주목하고 성인학습자의 참여격차가 심각하다는 인식하에 ‘대학중심 평생교육 체제 실현’을 주요 영역으로 선정하고 이를 위한 추진과제로서 ①성인학습자를 위한 대학체제 개편, ②지역대학의 평생교육 역할강화, ③국가직무능력 표준 기반 학습·자격 연계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이는 박근혜 정부하에서의 대학 평생교육 지원사업은 기본적으로는 고등교육 대중화시대(universal access)임에도 불구하고 성인학습자의 세대간 교육격차가 심화되었고, 그 비참여 이유는 경제적 이유라는 판단하에 창조경제조성을 위한 대학평생교육 지원사업을 확대하고자 하였다(교육부, 2013). 이 시기에 교육부는 평생학습중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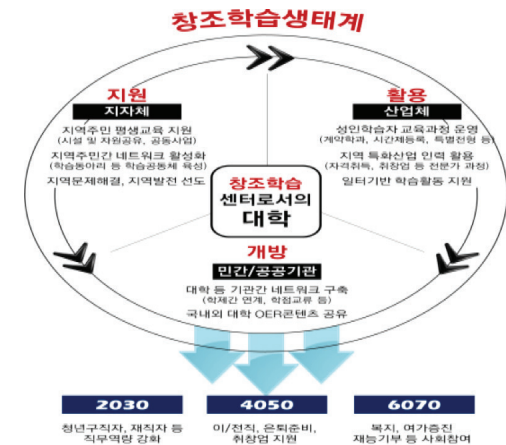
[그림 6] 성인친화형 대학체제의 기본 개념
출처: 교육부(2013)



대학 지원사업, 평생교육단과대학 지원사업과 같은 형식으로 성인친화형 대학체제로의 개편을 도모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재원투입을 강행하였다.

이와 같은 제3차 기본계획 하에서의 성인친화형 대학체제 개편지원은 기본적으로는 지역의 창조학습센터로서의 대학의 기능강화를 통하여 창조경제와 창조학습의 융합센터로서 지역대학을 재설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창조 인재육성을 강화하고자 하였다는데 그 특색이 있다. 이를 도표로 제시하면 [그림 7]과 같다.

[그림 7] 지역의 창조학습센터로서의 대학의 기능과 역할모형
출처: 교육부(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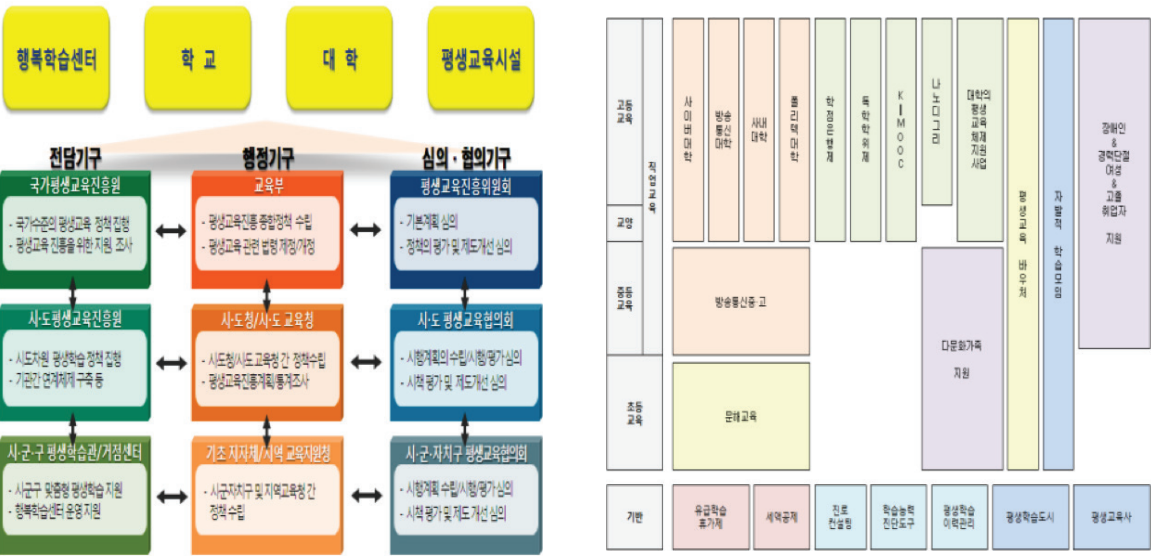


이와는 달리 제4차 기본계획에서는 ‘국민 누구나 누리는 평생학습’을 강조하면서 전국민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소외계층의 평생학습 사다리 마련을 강조하고 있다는데 그 특색이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소외계층의 평생학습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평생교육 바우처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였는가 하면, 문해교육 수혜율을 제고하고, 장애인 맞춤형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원센터 운영지원을 보다 확충하고자 하였다는데 그 특색이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시간적·경제적 제한완화를 통하여 전국민의 평생학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고령자·경력단절여성·장애인 등 학습자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학습을 지원함으로써 평생학습을 통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계층이동의 확대→포용적 성장이라고 하는 국정운영 철학을 실현하고자 하였다는데 그 특색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문재인 정부하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사업이 평생교육 바우처 사업이다(교육부, 2018).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사업은 평생교육법 제16조(경비보조 및 지원)에 의거하여, 학습자가 본인의 학습 요구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습 활동을 결정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학습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평생교육 바우처는 학습자가 본인의 학습 요구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습 활동을 결정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공하는 평생교육 이용권을 의미하는데, 2018년도의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의 성인 5,000명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35만원을 지원하였다.

마지막으로, 제3차 기본계획과 제4차 기본계획간의 차이점은 그 추진전략상의 차이에

서 그 차이가 확연하게 구분된다는데 그 특색이 있다. 제3차 기본 계획에서는 ①일-학습-능력연계, ②국가재정 지원확충, ③생애단계별·계층별 맞춤형 지원, ④ 협업과 네트워크 강화라는 4대 추진전략을 중심으로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 말하자면, 박근혜 정부하에서의 평생교육 추진전략은 한편으로는 국가·시·도 및 교육청·시·군·구·읍·면·동으로 이어지는 평생교육 추진체계의 완성을 위하여 읍·면·동 단위 행복학습센터 운영지원을 강화하고자 하였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스마트 평생학습 종합전달체계 구축을 통한 생애주기별·계층별 맞춤형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는데 그 특색이 있다. 이에 비하여, 제4차 기본계획에서는 4P전략(People, Participation, Prosperity, Partnership)하에 평생학습정책 패러다임을 프로그램이나 추진체제가 아니라, “사람(학습자)”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학습의 지속성, 자발성 등을 함양하기 위한 정책수단을 마련하고, 개인과 사회의 번영을 위한 인적자본 투자관점으로 평생교육 지원정책을 강화하며, 이를 위하여 기관간 네트워크 구축, 제도간 연계를 전제로 정책을 설계·추진하고자 하였다는데 그 특색이 있다.

[그림 8] 제3차 및 제4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상의 평생교육 지원체제 비교



<제3차 기본계획상의 평생교육 추진체제>

<제4차 기본계획상의 평생교육 제도의 위치>

3 서울 평생교육 정책 추진의 현주소

서울 평생교육 정책의 추진과정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①제1차 서울평생학습진흥종합계획 추진의 일환으로 2015.12.에 작성된 ‘서울 글로벌 평생학습도시 서울구현 추진계

획(2016~2019)’, ②서울자유시민대학 운영종합계획으로서 2018.3에 작성된 ‘서울자유시민대학 2022 운영계획’, ③민선7기 서울시정 4개년 계획상의 평생교육 정책공약, 그리고 ④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중장기발전계획(2016~2018)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를 통해 현 서울 평생교육의 현주소를 가름해 보고자 한다.

먼저, 제1차 서울 평생학습진흥종합계획상에 나타나는 서울 평생교육진흥 정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6> 제1차 서울평생학습진흥종합계획상에 나타나는 주요특성

구분	제1차 서울 평생학습진흥종합계획(2016~2019)
수립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지위와 경제수준에 비하여 국민 행복지수는 OECD기준 최저수준으로 국민행복을 견인할 수 있는 매개가 필요함 - 저출산·고령화, 저성장, 위험사회의 도래에 따른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전략으로서의 평생학습의 중요성 부각 - 평생교육 격차해소 및 시민주도의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체계화된 평생학습 기반 조성의 필요
비전체계	

둘째, 서울자유시민대학 2022 운영계획상에 나타나는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7> 서울자유시민대학 2022 운영계획상에 나타나는 주요 특성

구분	서울자유시민대학 2022 운영계획(2018~2022)
수립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차 산업혁명, 노인인구 증가, 사회적 갈등 증폭 등 불안정하고 급변해 가는 현대사회이 지속성장·발전을 위한 핵심전략으로 평생학습 중요성 강조 - 서울시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지속적 증가에 따른 노동생산성 제고 필요성과 BB세대의 은퇴후 사회참여욕구 등 평생학습 수요 지속증대 전망 - 평생학습은 사회적 갈등의 해결기제로서 사회적 자본축적 등 근본적 대안 중 하나로 평가 - 서울시민의 평생교육 참여는 양적으로 지속증가 추세이나, 시민참여교육 등 시민력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비율은 여전히 낮은 상황

- 시민의 인문교양 함양을 위해 서울시민대학 지속 확대·운영 필요
- 서울시 평생학습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한단계 도약하기 위해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춘 질적 성장의 필요

비전체계

미션	글로벌 평생학습도시 서울 실현								
비전	시민력을 강화하는 평생학습 플랫폼								
목표	<div>인문적 감성과 지혜를 갖춘 성찰적 시민으로 성장</div> <div>행복한 배움을 통한 성숙한 시민사회 조성</div>								
추진 방향	<div>■ 시민들의 수요와 사회 트렌드를 반영한 양질의 교육과정 제공</div> <div>■ 배움에 대한 지속적인 동기 부여 및 학습의욕 고취</div> <div>■ 민·관이 함께 상생하는 평생학습 생태계 조성</div>								
전략 과제 (4개 분야 10개 과제)	<table> <tr> <td>1. 운영기반 확대 및 민·관 협력모델 마련</td><td> 1-1. 서울자유시민대학 운영기반 확대 1-2. 인문공동체 등 민·관 상생협력 모델 마련 </td></tr> <tr> <td>2. 교육과정 확대개편 및 양질의 교육 서비스 제공</td><td> 2-1. 교육분야 확대 개편 및 학습자 중심의 교육방법 다양화 2-2. 교육과정 품질관리 체계 강화 2-3. 강사풀(Pool) 구축 및 강사역량 강화 </td></tr> <tr> <td>3. 학습활동 지원체계 구축 및 명예 시민학위제 도입</td><td> 3-1. 수요자 맞춤형 학습활동 지원체계 구축 3-2. 인종기능기반의 실시간 자동응대 시스템 구축 3-3. 명예 시민학위제 도입을 통한 지속적인 학습동기 부여 </td></tr> <tr> <td>4. 국내외 학습활동 교류 및 전략적 홍보 강화</td><td> 4-1. 국내외 학습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4-2. 서울자유시민대학 위상 제고를 위한 전략적 홍보 강화 </td></tr> </table>	1. 운영기반 확대 및 민·관 협력모델 마련	1-1. 서울자유시민대학 운영기반 확대 1-2. 인문공동체 등 민·관 상생협력 모델 마련	2. 교육과정 확대개편 및 양질의 교육 서비스 제공	2-1. 교육분야 확대 개편 및 학습자 중심의 교육방법 다양화 2-2. 교육과정 품질관리 체계 강화 2-3. 강사풀(Pool) 구축 및 강사역량 강화	3. 학습활동 지원체계 구축 및 명예 시민학위제 도입	3-1. 수요자 맞춤형 학습활동 지원체계 구축 3-2. 인종기능기반의 실시간 자동응대 시스템 구축 3-3. 명예 시민학위제 도입을 통한 지속적인 학습동기 부여	4. 국내외 학습활동 교류 및 전략적 홍보 강화	4-1. 국내외 학습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4-2. 서울자유시민대학 위상 제고를 위한 전략적 홍보 강화
1. 운영기반 확대 및 민·관 협력모델 마련	1-1. 서울자유시민대학 운영기반 확대 1-2. 인문공동체 등 민·관 상생협력 모델 마련								
2. 교육과정 확대개편 및 양질의 교육 서비스 제공	2-1. 교육분야 확대 개편 및 학습자 중심의 교육방법 다양화 2-2. 교육과정 품질관리 체계 강화 2-3. 강사풀(Pool) 구축 및 강사역량 강화								
3. 학습활동 지원체계 구축 및 명예 시민학위제 도입	3-1. 수요자 맞춤형 학습활동 지원체계 구축 3-2. 인종기능기반의 실시간 자동응대 시스템 구축 3-3. 명예 시민학위제 도입을 통한 지속적인 학습동기 부여								
4. 국내외 학습활동 교류 및 전략적 홍보 강화	4-1. 국내외 학습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4-2. 서울자유시민대학 위상 제고를 위한 전략적 홍보 강화								

셋째, 민선7기 서울시정 4개년 계획상의 평생교육 분야의 정책 공약을 살펴보면, 전체 182개 과제 가운데 교육영역은 6개 과제이며 평생교육 분야는 2개과제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서울시,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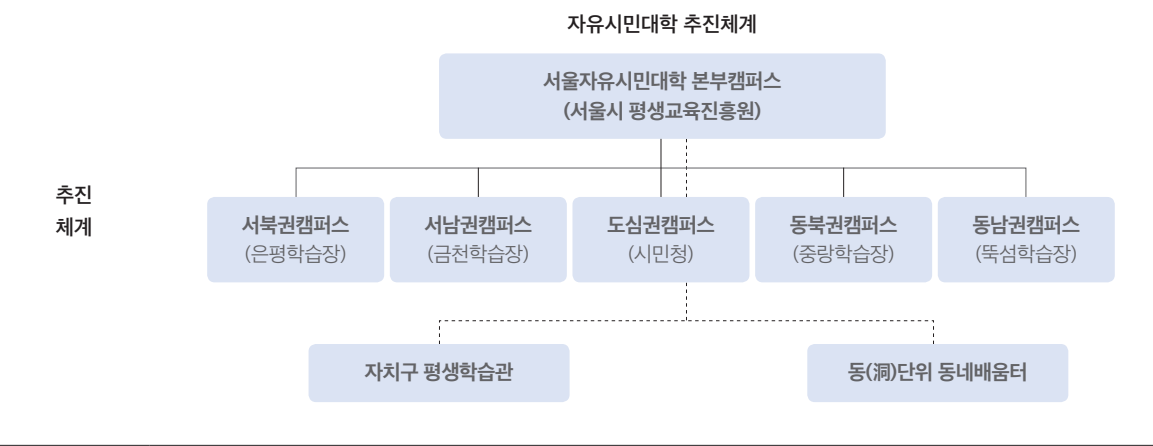
이 가운데, 평생교육분야의 추진과제는 ①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학습도시 조성, ②평생 학습도시 핵심브랜드 서울자유시민대학 운영 확대이며, 이들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8> 서울시 민선7기 교육분야 추진과제 목록 현황

구분	민선7기 정책중점과제(2019~2022)
교 육 <6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비강남권 학교 우선 지원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평생학습 도시 조성
	평생학습도시 핵심 브랜드 서울자유시민대학 운영 확대
	아동청소년 문화체육 인프라 확보를 통한 1예1체 활동 지원 및 끼발산 기회 확대
	청소년 시정참여 및 인권교육 활성화 지원
	협치를 통한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

<표 9> 민선7기 서울시 정책과제상의 평생교육 정책 내용

구분	민선7기 정책중점과제(2019~2022)
수립 배경	- 평생학습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의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실제 참여율은 여전히 낮아 참여율 제고 필요 - 서울시 평생학습 지원체계 및 시-자치구-동(洞)간 연계 강화 필요 - 저출산·고령화 심화로 성인 및 고령자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퇴직이후에도 일자리를 희망하고 있어 생애단계별 교육을 통해 이직·은퇴 등 생애전환기를 대비하기 위한 학습 지원체계 필요 - 서울시민대학을 서울시 평생학습 대표 브랜드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춘 질적 성장이 필요한 시점
추진 계획	- 일상생활 속 시민들의 친숙한 평생학습 공간, 동네배움터 확대운영·동네배움터 활성화·내실화 등을 위해 2년간 매칭 지원 및 배움 플래너 운영 - 시-자치구 상호연계 운영·지원을 통한 평생학습 네트워크 활성화 및 내실화 - 생애단계별 시민이 필요로 하는 교육서비스 제공위한 인생학교 운영 ·2030청년세대, 4050더블케어세대, 6070 고령세대위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 서울시 평생학습 프로그램 정보제공 및 학습지도 서비스 지원·평생학습포털 내 ‘(가칭) 평생학습 몽땅1번지’시스템 구축



마지막으로,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중장기발전계획(2016~2018)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0>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 중장기발전계획(2016~2018)상의 주요 내용

구분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 중장기 발전계획(2016~2018)
수립 배경	- 재단법인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 설립에 따른 중장기 발전계획의 필요성 · 세계도시 서울의 위상에 맞는 선도적인 평생교육 추진체제로서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의 역할기대 - 서울특별시민의 ‘스마일 평생학습’의 실현을 위한 전략과제 수립필요 - ‘스마일,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 발전계획 수립하기 위한 효율적인 추진체계 구축 필요
비전	- 비전: ‘시민이 배우며 웃는다’ -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의 영어약자인 ‘SMILE’을 모티브로 형상화함 - 서울을 가상의 학습생태계로 조성하기 위해 ‘서울은 학교다’라는 핵심슬로건을 중심으로 3개의 기관 운영전략 슬로건화 도모 · 시민이 만든다. · 현장이 성장한다. · 서울학습은 혁신한다.

<표 10>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 중장기발전계획(2016~2018)상의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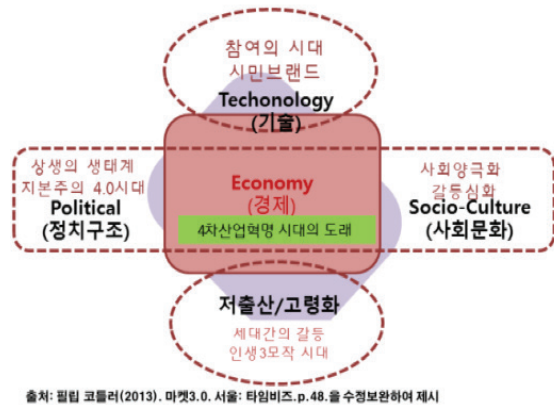
	전략 슬로건	추진과제
추진 과제	서울은 학교다 서울이 학습을 통해 웃을 수 있는 도시, 서울은 '지붕없는 거대한 학교' 생태계를 조성한다.	· 시민학교 · 일터학교 · 마디학교(생애전환기 교육지원) · 포용학교(소외계층을 위한 교육지원)
	시민이 만든다 서울시민이 주도적으로 '서울은 학교다'라는 학습생태계 조성의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오프라인 터전(환경)을 조성한다.	· 평생학습 참여의 장 조성 · 평생학습 소통 채널 서비스 · 평생학습정보 공유 플랫폼 서비스
	현장이 성장한다 서울지역 평생학습 수평적·수직적 다층적 현장의 조직 및 개인의 지속적인 성장과 협력을 이끈다.	· 서울지역 평생학습 성장지원 서비스: (개인차원)활동가 계속교육 (조직차원)지역 컨설팅서비스 · 서울 평생학습 다층적 협의체 운영
	서울학습은 혁신한다 서울 평생학습의 창조적 성장을 위해 혁신모델을 연구하고 개발한다.	· 시민 평생학습 진흥모델 개발 · 서울형 평생학습 혁신모델개발

4 서울 평생교육 정책 추진의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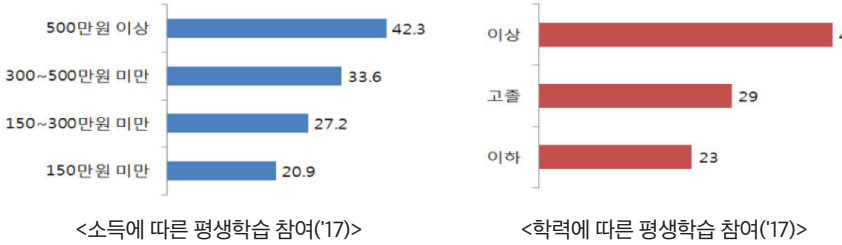
이상과 같은 중앙정부의 평생교육 정책변화의 방향과 그 특성을 이해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사회의 변화의 방향을 통하여 대한민국 평생교육 1번지로서의 서울이 지향해야 할 평생교육의 지향점이 무엇이어야 하고,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서울 평생학습 정책의 추진배경으로서 현재, 우리 사회가 과거 어느 시대에서도, 어느 사회에서도 경험하지 못했던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 변화의 핵심은 저출산·고령화의 진전, 4차산업 혁명의 도래, 사회 불평등의 심화, 그리고 자본주의4.0 시대에 따른 정부의 역할 변화 등과 같은 것을 지적할 수 있다. 이를 간단하게 제시하면 [그림9]와 같다.

[그림 9] 사회변화의 주요 트렌드



[그림 10] 사회양극화
지속심화 현상
출처: 교육부(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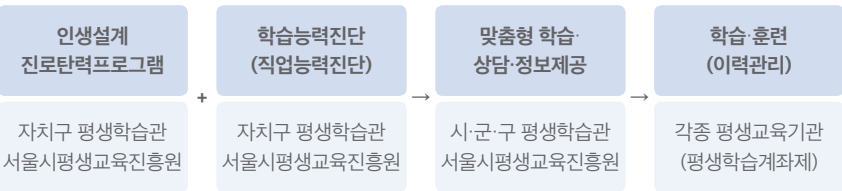


둘째, 헌법상에 보장된 전국민의 평생학습권 보장을 위한 조치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서울시민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2017년도의 경우 40.1%로 나타나 전국 평균(34.4%) 대비 5.7%p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2017), 전국 수준과 마찬가지로 평생학습 참여에 있어서 학력, 소득 등 학습자 특성에 따라 참여율에 큰 격차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참여율 격차가 지난 10여년 사이에 확대되어 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교육부, 2018).

이는 제4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단순한 차원에서의 평생교육 참여율 보다는 실제 학습시간 제고를 위한 정책지원과 지역평생교육 역량 향상을 통하여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및 저소득층 소외계층의 평생교육 참여 독려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소외계층을 위한 평생학습사다리를 마련하고 이를 적극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점에서 다문화가정, 장애인, 비문해자, 고령자 등 평생학습 소외계층에 대한 체계적이고 강도 높은 평생학습 지원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장애인 평생교육추진체제 및 문해교육 지원체제를 강화함과 동시에 소외계층을 위한 평생학습 바우처를 정부차원에서 제공하는 수준보다 한 차원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정책적 결단과 지원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셋째, 서울시민 개개인의 여건에 맞는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체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특히, 미취업·실직·은퇴 등 인생의 각 전환에 있는 청년, 중장년,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인생설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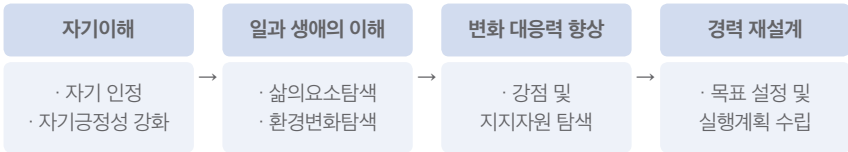
[그림 11] 생애전환기 평생교육
지원 체제 구조도
출처: 교육부(2018)의 내용을
일부 수정·보완하여 정리



이와 같은 생애전환기의 평생교육 지원체제의 구축을 통하여 생애 각 장면에서 당면하는 진로장벽 해결을 위해 요구되는 자기효능감, 정서조절 능력 등 심리·인지적 역량과 정서 안정감 회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정부관계부처, 2018). 특히, 청년은 물론 성인의 생애진로개발과 관련하여서는 미국, 캐나다, 호주 등 해외 국가들은 성인 진로개발을 위한 목표 및 지원체제를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이들을 위한 진로개발 상담 및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 제공은 특히 100세 시대를 맞이하는 현시점에서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라고 본다.

[그림 12] 성인 진로탄력성 프로그램(예시)

출처: 정부관계부처(2018)



넷째, 서울시의 민선7기 정책방향에서도 제안된 바와 같이 ‘시대와 나란히, 시민과 나란히’라는 정책비전이 제대로 잡기 위해서는 평생교육 정책추진에 있어서 시대정신이 고스란히 반영되어야 마땅하다고 본다. 현 시점에서 우리사회에서 강조하여야 할 시대정신은 바로 사회적 자본의 확충이라고 본다. 평생교육은 이제 인적자본(human capital)을 넘어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을 축적하는 중요한 기제로 인식되고 있다. 인적자본의 개발이 경제중심 사고로부터 교육을 조망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사회적 자본의 확충은 사람중심 사고로부터 교육을 파악하는 것을 의미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서 중요한 키워드가 ‘지능’과 ‘소통’이라고 한다면 사회적 자본의 확충이야 말로 현 시점에서 강화하여야 할 중요한 자산이다.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교의 후쿠야마 교수는 《트러스트: TRUST》에서 ‘신뢰’가 국가 경쟁력의 가장 중요한 원천이라고 했다. 그에 따르면, 신뢰는 한 사회의 사회적 자산이고, 국가들은 고 신뢰사회(high-trust society)와 저 신뢰사회 (low-trust society)로 구분된다. 한국사회는 가까운 사람끼리의 두터운 신뢰(thick trust)는 강한 반면, 모르는 사람 사이에 통용되는 ‘얇은 신뢰(thin trust)는 매우 취약하다. 이에 따라 우리 사회는 ‘얇은 인간관계와 낮은 사회적 자본’으로 대표되는 ‘저 신뢰국가’로 명명되고 있다. 신뢰가 약한 사회는 상호교류가 저해되고 상호협력과 소통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 점에서 서울시에서 왜 현시점에서 ‘사회적 우정도시로서의 서울’을 강조하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유시민대학과 민주시민교육센터 사업이 보다 확충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것이 바로 현 시점에서 국가가 책임지고 지역이 앞장서서 추진하여야 할 성인 공교육 시대의 대표 사업이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있어서 국가가 책임지고 지역이 앞장서야 하는 교육은 학교교육에만 한정되지 말아야 하며, 이는 이미 전 세계적인 추세인 것을 유념해야 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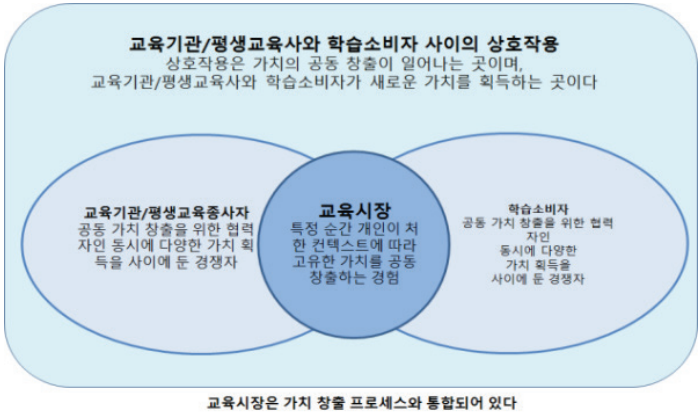
다섯째, 서울형 평생교육 추진체제의 정비가 필요하다. 서울은 대한민국 수도서울이자, 타 시·도의 평생학습도시로서의 전형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평생학습이 사람중심의 포용성장을 위한 핵심기제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근거리 생활권 평생학습 인프라가 조성되어야 하며, 나아가서 생애단계별 평생학습 기반이 구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평생교육법상에 명시된 동단위 평생학습센터-구차원의 평생학습관-시평생교육진흥원과 같은 평생교육 추진체제 중심의 평생학습 지원기반을 과감히 탈피하여 평생학습 지원혁신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이는 도시 곳곳이 배움의 공간이 되게 하고, 시민 누구나 배움의 터전에서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점에서 서울은 동단위의 동네배움터 지원사업의 지속적인 확장을 통해 한걸음에 닿는 평생학습 지원체제를 구축함과 동시에 보다 전문화되고 생애단계별 평생학습에 관한 전문적인 상담과 학습교류 활동이 가능한 지역 거점공간으로서의 평생교육 추진체제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다양한 형태의 온·오프 겸용 평생학습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제 평생교육을 포함한 모든 서비스는 ‘경험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험중심의 서비스는 맞춤형 서비스에 기반 한다. 최근에는 공간에서의 경험과 가치를 판매하는 가게들이 성행하고 있다. 광고회사 9FRUITSMEDIA에서 운영하는 지식방앗간B밀, 파주 헤이리 마을의 퍼니처 카페 호메오, 안국역 근처의 아리리오 뮤지엄 서울 등이 그 대표적이다. 이들이 오프라인 중심의 경험과 가치를 공유하는 공간이라고 한다면,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에서 운영하는 ‘모두의 학교’는 가르치고 배우는 자의 구분이 없는 서울형 평생학습 혁신 공간이다. 그런데, 최근 유튜브(YouTube), 페이스북(Facebook) 등은 온라인상의 온갖 경험과 가치가 공유되는 가상공간으로 자리잡고 있다. 서울의 평생학습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제 시공간을 넘어서 온·오프 융복합 플랫폼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서울 시민들이 다양한 경험치를 서로 공유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놀아볼 꺼리도 없었고, 놀 짬도 없었고, 놀 터도 없었던 과거 시대와는 달리 이제는 다양한 형태의 경험꺼리와 경험 터가 여기저기에서 나타나고 있다. IT업체들의 동향을 살펴보면, 플랫폼을 지배하는 자가 세상을 지배한다. 서울의 평생학습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평생학습 플랫폼이 마련되고 거기에서 다양한 형태의 학습꺼리들이 제공되고 공유되어 학습할 짬들을 마련해 주는 작업이 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평생학습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평생학습의 무대를 상상마당으로 무한 진화하도록 하고, 거기서 시민과 전문가간의 소통과 협력이 일어나게 함으로써 학습이 일상화되는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있어서는 무대에 선 현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학습활동을 지원하고, 안내해 줄 촉진자(facilitator)가 필요하다. 이 점에서 서울형 평생학습 공간을 아우르고 누비면서 시민들과 학습의 일상화를 도모할 수 있는 역량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다. 말하자면, 서울형 평생학습 공

간을 각종 프로그램들로 촘촘히 채우고 시민들과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평생학습 플랫폼, 평생교육사 등의 배치 및 운영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여기에서 이들 역량있는 전문가의 배치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서로 연계하고 소통하며, 성장할 수 있는 네트워크화된 조직과 이들의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체계적인 프로그램과 지원이 상시화·체계화될 필요가 있다.

[그림 13] 평생학습 전달체제에 있어서 상호작용의 중요성



참고문헌

강순희 외(2013). 사회학습망 구축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보고서.

고상두·민희 편(2016). 사회갈등과 정치적 소통. 서울: 도서출판 오름.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부(2017). 제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사회의 도래. 2017.4.6. 정책뉴스(http://blog.naver.com/with_msip/220976861292. 2018.12.22.출력)

교육개혁위원회(1995).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Ⅰ). 교육개혁위원회 보고서.

교육부(2016)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한 중장기 교육정책의 방향. 교육부 보도자료(2016. 12.23.)

교육부(2018). 제4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2018~2022). 교육부 평생교육국.

교육부(2013). 제3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2013~2017).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

교육부(2017). 2017 평생교육백서. 서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교육부(2013). 2013 평생교육백서. 서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교육부(2016). OECD 교육지표 조사결과 보도자료(2016.9.13.)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5). Post-2015와 평생학습. 2015 글로벌평생교육동향 2015년 2호 (PM2016-2). 서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정기획자문위원회(2017).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보도자료(2017.7)

권두승(2017). 사회적 자본의 형성: 평생학습이 답이다. 한국의 논점 2018. 서울: 북바이북.

권두승(2016). 인생100세 시대: 평생학습이 답이다. 한국의 논점 2017. 서울: 북바이북.

김신일(2016). 2016 한국사회, 평생학습에 길을 묻다. 2016 한국사회, 평생학습에 길을 묻다. 제1회 서울평생학습대토론회 발표자료집. 9-13.

박길성(2013). 사회는 갈등을 만들고 갈등은 사회를 만든다 : 한국사회의 갈등 지형과 연대적 공존의 모색. 서울: 고려대학교출판부.

서울시평생교육국(2018). 일상분과(교육분야) 민선7기 시정4개년 계획.

서울시평생교육국(2015). 서울 글로벌 평생학습도시 서울구현 추진계획(2016~2019).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2017). 2017 서울시민의 평생학습.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연구보고서.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2015).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중장기발전계획(2016~2018).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연구보고서.

서울시청 평생교육국(2018). 서울자유시민대학 2022 운영계획. 평생교육국 내부자료.

정부관계부처(2018).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 교육부 보도자료(2018.11.16.).

한국교육개발원(2017). 2017 한국성인의 평생학습실태 자료집. 충북: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2018). 평생교육통계자료. www.lifelong.kedi.re.kr.

현대경제연구원(2016). 사회적 갈등의 경제적 효과 추정과 시사점. 경제주평, 16(45), 1-12.

홍영란 외(2016). 교육개혁의 전망과 과제(Ⅰ): 고등·평생교육 영역. 충북: 한국교육개발원.

황수경(2016). “지니계수에도 안 잡히는 소득 불평등… '계층이동 사다리' 사라졌기 때문”. 조선 Biz(2017.5.22.기사)

Kaletsy, A.(2011). Capitalism 4.0: The Birth of a New Economy in the Aftermath of Crisis. PA: Persesus Books. 위선주 역. 자본주의 4.0: 신 자유주의를 대체할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 서울: 컬처엔스토리.

Kotler, P., Kartajaya, H., & Setiawan, I. (2010). Marketing 3.0: From products to customers to the human spirit. Hoboken, NJ: John Wiley & Sons. 안진환 역(2010). 모든 것을 바꾸어 놓을 새로운 세상의 도래: 마켓 3.0. 서울: 타임비즈.

Kotler, P., Kartajaya, H., & Setiawan, I. (2017). Marketing 4.0: Moving from traditional to digital . Hoboken, NJ: John Wiley & Sons. 이진원 역(2017). 필립 코틀러의 마켓 4.0. 서울: 더퀘스트..

Maxwell, J.(2014). Sometimes you win sometimes you learn. N.Y.: Center Street. 박산호 역(2016). 어떻게 배울 것인가. 서울: 비즈니스 북스.

Maxwell, J.(2014). The 15 invaluable laws of growth. N.Y.: Center Street. 박산호 역(2015). 사람은 무엇으로 성장하는가. 서울: 비즈니스 북스.

Schwab, K. (2016).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Geneva, Switzerland: World Economic Forum. 송경진 역(2016). 클라우드 슈밥의 제4차 산업혁명. 서울: 새로운현재.

Stiglitz, J.H.(2015). The price of inequality. 이순희 역(2015). 불평등의 대가: 분열된 사회는 왜 위험한가. 서울: 열린 책들.

ISSUE BRIEF 2018

키워드로 보는 2018 평생학습 이슈

vol.7
평생학습 × 정책

ISSUE BRIEF 2018 - vol. 7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발행처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발행인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장 김영철
발행일 2018년 9월
디자인 그래픽 피엘에프(GRAFIK P.L-F)

주소 (04168) 서울특별시 마포구 새창로7(도화동) 14층
전화 02-719-6093
팩스 02-6730-7166
홈페이지 <http://smile.seoul.kr>

